

옛날 옛적 올라<sup>1)</sup> 짐진국도 상시당(上試堂) 누려 임진국도 상시당, 짐진국은 가난<sup>2)</sup>하고 서난<sup>2)</sup> 게 살고 임진국은 천아거부(天下巨富)로 잘 살 때, 짐진국도 주식이 웃고<sup>3)</sup> 임진국도 주식(子息)이 엇언, 영급(靈及)조은 동개남절당(東觀音寺堂)에 들어간 원불수록(願佛水陸) 드련 주식(子息)을 낳는 게, 짐진국은 아들을 나고 임진국은 뜰을 나난<sup>4)</sup> 짐진국과 임진국이 양사돈(兩查頓)을 무어<sup>5)</sup> 구덕흔수를<sup>6)</sup> 지냅데다.

짐진국 아들은 일름[名]을 지우는 디 ‘원강도령’이엔<sup>7)</sup> 흐고 임진국 뚝님애긴 ‘원강아미’엔<sup>8)</sup> 일름을 지완 열다섯이 금안차 이십 수물이 나니 원강암이가 유태(有胎)를 가져 아기는 태독<sup>9)</sup>?찌<sup>7)</sup> 벤 때 서천꽃밭[西天花田]<sup>8)</sup> 꽃감관(花監官)으로 살레 가게 웨여간다. 원강암이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으로 올라갈 때 원강암이는 아기는 태독<sup>9)</sup>?찌 베여놓고 밭은 콩<sup>10)</sup>?실<sup>11)</sup>?찌<sup>9)</sup> 봉물어져,<sup>10)</sup> 밭에 발뱅이 난 걸을 수가 엊었고나. 가당<sup>11)</sup> 날이 정글민<sup>12)</sup> 인간처(人間處)가 엊어지고 어육폐기<sup>13)</sup> 쏘곱에<sup>14)</sup> 어육폐기 으지<sup>15)</sup> 삼양 그날 밤을 새여가멍 가는 것이 흐를날은 정글아지고, 몸은 고단허여<sup>16)</sup> 걸을 수 엊어지니 밤유예흘<sup>17)</sup> 디가 엊어 펑제낭<sup>18)</sup> 가지예 올랑 펑제낭 가질 으지(依支)삼고 그날 밤을 새여가는 디, 천양<sup>19)</sup> 목들르고<sup>19)</sup> 지왕<sup>20)</sup> 목을 들러가난, 원강암이 말을 흐뒈.  
“저 둑은 어디서 우는 둑이리까?”

원강도령이 말을 흐뒈.

“저 둑은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칩(萬年長者家) 둑 우는 소리가 웬다.”

“남인(男人)님아 남인님아, 난 이제 더 걸을 수가 엊이메 저 둑 소리 나는 장제칩이 강 날 풀아 둁 가기 어찌흡네까?”

“그레민 어멍[母]은 언매를<sup>20)</sup> 받곡 베 쏘곱에 신<sup>21)</sup> 아긴 언매를 받으민 좋겠느냐?”

“날랑 돈 삼백량(三百兩)을 받곡 베 쏘곱에 신 아기랑 돈 벡량만 받읍서.”

1) 올라 : 위(上)로의 뜻. 신을 호칭할 때 상위의 신을 부를 때는 ‘올라’를 붙이고, 그보다 하위의 신을 부를 때는 ‘누려’를 붙임.

2) 서난<sup>2)</sup> 게 : 가난에 대한 조운구(調韻句).

3) 웃고 : 없고.

4) 나난 : 낳으니까.

5) 무어 : 맷어.

6) 구덕흔수 : 아기 구덕에 눕혀 키울 때 미리 서로 약혼시킴.

7) 태독<sup>9)</sup>?찌 : 대(大)독같이. 큰 항아리같이.

8) 서천꽃밭(西天花田) : 환생(還生)꽃 멸망(滅亡)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9) 콩<sup>10)</sup>?실<sup>11)</sup>?찌 : 콩구슬같이.

10) 봉물어져 : 부풀어져.

11) 가당 : 가다가.

12) 정글민 : 저물면.

13) 어육폐기 : 억새포기.

14) 쏘곱에 : 속에.

15) 으지 : 어떤 물건의 그늘에서 비, 눈, 바람 따위를 가리는 일. 또는 그 물건, 의지(依支)

16) 고단허여 : 피곤하여.

17) 밤유예흘 : 밤 유숙(留宿)할.

18) 펑제낭 : 팽나무.

19) 목들르고 : 닭의 울음을 표현한 것.

20) 언매를 : 얼마를.

21) 베 쏘곱에 신 : 뱃속에 있는.

“어서 걸랑 그리 헤자.”

제인장제집의 간,

“종이나 삽서.”

일렀더니, 제인장제(子賢長者)가 말을 헤워.

“큰뜰아기 나고 보라. 저 종 어떻허염직 헤니?”

큰뜰아기 말을 헤워.

“그 종 사지 맙서. 집안 망흡네다.”

“셋뜰아기<sup>22)</sup> 나고 보라. 저 종 어떻허염직 헤니?”

“그 종 사지 맑서. 집안 망흡네다.”

“족은뜰아기 나고 보라. 저 종 어떻허염직 헤니?”

“족은뜰아기 말을 헤워.

“아바지 그 종 사옵소서. 우리 집안 이(利)를 종인지 해(害)를 종인지 모르나네.<sup>23)</sup> 그 종 사 듭서.”

“어서 걸랑 그리 헤자.”

어멍은 돈 삼백량(三百兩) 베 쏘곱에 든 아긴 돈 벡량을 받았더니, 원강도령은 안스랑으로<sup>24)</sup> 불러놓고 도임상(到任床)을<sup>25)</sup> 출려 주워 원강암이는 정짓<sup>26)</sup> 구석에서 식은 밥 물증이를<sup>27)</sup> 내여주니, 원강도령이 눈물을 삼시번을 흘리다네 제인장제 보고 말을 헤워.

“이 모을 풍십(風習)은 어떻 헤는디 모르쿠다마는<sup>28)</sup> 우리 모을 풍십은 서로 이별흘 땐 맞상을<sup>29)</sup> 추려주는 법이웨다.”

그제사 부베간(夫婦間)을 맞상을 출려 주니 맞상을 받아 말을 헤워.

“낭군님아 낭군님아, 본매나<sup>30)</sup> 주어두고 가옵소서.”

상동낭<sup>31)</sup> 흥얼레기<sup>32)</sup> 훈착썩 거낀<sup>33)</sup> 본매 두어두고, 원강암이가 말을 헤워.

“벳속에 신 아기, 아들은 나민 뭇이엥<sup>34)</sup> 일름을 지우곡 뜰은 나민 뭇이엥 일름을 지우리까?”

“아들랑 나건 ‘신산만산할라꿍이’엥 일름 지우곡 둘랑 나건 ‘할락덱이’엥 일름을 지우라.”

“어서 걸랑 기영흡서.”<sup>35)</sup>

원강도령은 서천꽃밭[西天花田]으로 이별(離別)허여 나가고 원강암이는 종하님<sup>36)</sup> 사는다. 그날 처녁부띠 초이경(初二更)이 당한 난 제인장제가 원강암이신디 ‘몸허락을 헤라’ 허여 간다.

22) 셋뜰아기 : 둘쨋 딸아기.

23) 모르나네 : 모르니까.

24) 안스랑으로 : 안사랑방. 곧 방구들을 뜻함.

25) 도임상(到任床) : 잘 차린 음식상의 뜻으로 쓴 것.

26) 정지 : 부엌.

27) 물증이 : 물 말아 놓은 것.

28) 모르쿠다마는 : 모르겠습니다마는.

29) 맞상 : 마주 앉아 먹게 차린 밥상.

30) 본매나 : 증거(證據)가 될 만한 사물(事物). ‘본매본짱’이라고도 함.

31) 상동낭 : 상동나무.

32) 흥얼레기 : 흥(紅) 어레빗(梳).

33) 훈착썩 거낀 : 한 조각씩 꺾어서.

34) 뭇이엥 : 무엇이라고.

35) 기영흡서 : 그리 하십시오.

36) 종하님 : 노비(奴婢).

“이 고을 풍습(風習)은 어찌하나 모르媿 우리 뜻을 풍습은 벤 아기가 나사 몸허락을 헌는 법입네다.”

“어서 걸랑 그리 헌자.”

벤 아기가 나오 보니 아들주식 솟아나니 ‘신산만산할락궁이’로 일름을 지와두고, 그날 밤부띠 제인들어 제인장젠 몸허락을 헌라 헌니.

“이 고을 풍습(風習)은 어찌 헌나 모르媿 우리 뜻을 풍습은 나은 아기 열다섯 십오세가 뛰여사 몸허락을 헌는 법입네다.”

“어서 걸랑 그리 헌자.”

할락궁이가 열다섯 나는 헤엔 어머님 보고 말을 헌媿.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아바지는 어딜 갔오리까?”

“제인장제가 너의 아바지가 뛰여진다.”

헌를날은 ?랑비가 술술 누리는 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나 훈 뛰[一升] 보까줍서.”

“설운 아기 콩이 어디 성<sup>37)</sup> 보까 주느니?”

“장제집(長者家) 장막이나 털영 봅서.”

장막을 털어단 콩 훈 좀을 보끄노렌 헌난 할락궁이 말을 헌媿.

“어머님아 어머님아, 저 올레예<sup>38)</sup> 누게 오란<sup>39)</sup> 불럼수다.<sup>40)</sup> 어서 나오 오라 봅서.”<sup>41)</sup>

저 올레예 나오 보니 아무도 엊어지고, 할락궁이는 콩 젓단 베수기를<sup>42)</sup> 정짓방석<sup>43)</sup> 알레레 곱져두고,<sup>44)</sup>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 문딱<sup>45)</sup> 캄시메<sup>46)</sup> 훈저 젓입서.”

베수기를 못 촇안 이레저레 허여가난,

“아이고, 어머님, 콩 문딱 캄수게<sup>47)</sup> 손으로라도 훈저 젓입서.”

손으로 젓젠 헌난 할락궁이가 어멍[母] 손을 꼭 누르뜨멍,<sup>48)</sup>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도 바른말 못 헌쿠가?<sup>49)</sup> 우리 아바지 간 딜 골아줍서.”<sup>50)</sup>

“이 손 노라, 골아주마.”

손을 노난 어머님이 말을 헌媿.

37) 성 : 있어서.

38) 올레 :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골목길.

39) 오란 : 와서.

40) 불럼수다 : 부릅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41) 나오 오라 봅서 : 나와 보십시오.

42) 베수기 : 죽젓광이.

43) 정짓방석 : 부엌에서 깔고 앉는 방석. 짚으로 엮어 만든다.

44) 곱져두고 : 숨겨두고.

45) 문딱 : 모두.

46) 캄시메 : 타고 있으니.

47) 캄수게 : 타지 않습니까.

48) 누르뜨멍 : 누르면서.

49) 못 헌쿠가 : 못하겠습니까.

50) 골아줍서 : 말해 주십시오.

“너의 아바지는 서천꽃밭[西天花田] 꽃감관 꽃생인[花監官花聖人]이 뛰여진다.”

“어머님아 계건<sup>51)</sup> 내 아바질 쫓아가커메<sup>52)</sup> 어머님이 죽는 혼(限)이 셔도 나 간 달 이르지 맙서. 어머님아, 장제집(長者家)의 모물장막이나<sup>53)</sup> 털엉 모물펌벽<sup>54)</sup> 식 뎅이만 허여 줍서.”

할락궁이 어머님<sup>55)</sup>고 이별허연 먼 올레예 나사난 천년(千年)등이<sup>55)</sup> 나가네 주끄젠<sup>56)</sup> 허여가난 모물펌벽 혼 뎅이를 잡아데껴<sup>57)</sup> 모물펌벽 혼 뎅이 먹는 틈에 천릿질[千里路]를 뛰고 간다. 또 혼 뎅이 잡아데껴 먹는 틈에 수만리를 지나가고, 가단보난 독무립<sup>58)</sup> 친 물이 있어져 그 물 넘어가고, 가단보난 준동<sup>59)</sup> 친 물이 션<sup>60)</sup> 그 물 넘어가고 가단 보난 목 친 물이 있어전 그 물 넘어가 난 서천꽃밭이 근당<sup>61)</sup>한다. 서천꽃밭 쉬양버들 상가지 우의 올라 보니 궁예청(宮女廳)덜<sup>61)</sup> 서천꽃 밭 물 주노랜 연못디 물 잉으레<sup>62)</sup> 오라시난<sup>63)</sup> 상손까락을 잡아무꺼 입으로 께물어네 주지피를 삼식방을 연못데레 털어지우난<sup>64)</sup> 부정(不淨)이 만하여 연못이 쫓아진다.<sup>65)</sup> 궁예청이 꽃감관아피 간 말을 흐<sup>66)</sup>워.

“연못 가온디 쉬양버드낭 상가지예 무지럭총각이<sup>66)</sup> 앗아서 연못디 풍문조화(風雲造化)를 짚啐다.”<sup>67)</sup>

꽃감관이 나오란 말을 흐<sup>66)</sup>워,

“너는 귀신이냐 생인(生人)이냐?”

“어찌 귀신이 날 수 있으리까? 생인이 웅네다. 신산만산할락궁이가 웅네다.”

꽃감관이 겁을 발딱 내멍.

“너 본메나<sup>68)</sup> 가졌느냐?”

할락궁이가 내여놓는 건 보난 상동낭홍얼레기<sup>69)</sup> 혼 착을 내여노난 꽃감관[花監官] 홍얼레기<sup>70)</sup>하고 마주 맞추와보난 똑 들어맞아가는구나. 꽃감관이 말을 흐<sup>66)</sup>워,

“나 주식(子息)이 분명<sup>71)</sup>구나. 나를 쫓아올 때에 독무립 친 물이 엊어냐?”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초대김<sup>70)</sup> 받은 물이로다. 준동 친 물 엊어냐?”

51) 계건 : 그려거든.

52) 쫓아가커메 : 찾아갈 터이니. 찾아가겠으니.

53) 모물장막 : 메밀장막.

54) 모물펌벽 : 메밀펌벽.

55) 천년(千年)등이 : 개(犬)이름.

56) 주끄젠 : 짖자고.

57) 잡아데껴 : 집어 던져.

58) 독무립 : 무릎.

59) 준동 : 잔동이.

60) 션 : 있어서.

61) 궁예청(宮女廳) : 여러 사람을 일컬을 때 '-청'을 붙임.

62) 잉으레 : 이러.

63) 오라시난 : 왔으니까.

64) 털어지우난 : 떨어뜨리니.

65) 쫓아진다 : 잣아든다.

66) 무지럭총각 : 머리를 풀친 총각을 양잡아 부르는 말.

67) 짚啐다 : 주고 있습니다.

68) 본메 : 증거물이 될 만한 사물.

69) 상동낭홍얼레기 : 상동나무로 만든 홍어레빗(紅梳).

70) 초대김 : 첫번째 다짐.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이(二)대김 받은 물이로다. 목 친 물이 엊어냐?”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삼대김 받은 물이로다. 느네 어머님 원쉬(怨讐)를 가프커건 수레멜망악심꽃[滅亡惡心花]을<sup>71)</sup> 내여 주커메 느네 어머님 원쉴 가프곡 도환생꽃[還生花]을 내여주건 느네 어머님 살려오라. 이 꽃[花]은 웃음 웃을 꽃이라. 제인장제집이 가건 ‘이 내 몸이 이 오늘날 죽어도 좋수다마는 장제집의 일가방답<sup>72)</sup> 삼당웨당(三堂外堂) 다 불러다 주옵소서. 훌말이 있오이다.’ 허영 다 몯아오건<sup>73)</sup> 웃음웃을 꽃을 허끄민<sup>74)</sup> 황천(仰天)웃음이 버러질거메, 그 때랑 싸움싸울 꽃을 노민 삼당 웨당이 싸움을 훌 거여. 메마끗데<sup>75)</sup> 수레멜망악심꽃을 노민 삼당 웨당이 다 죽을 거여. 그 때 장제집(長者家)의 족은 땔 아기만 살려뒀당 ‘우리 어명[母] 죽여단 데껴분 딜<sup>76)</sup> 골아주민<sup>77)</sup> 아니 죽이키여’ 허영 죽은 곳을 일러주건 도환생꽃을 노앙 어머님 살려오라.”

“어서 걸랑 그럽소서.”

아바님 이르는 냥 악심꽃광 환생꽃을 아전<sup>78)</sup> 장제집일 오라시난<sup>79)</sup> 죽일팔로<sup>80)</sup> 둘러가니 할락궁이 말을 훈ಡ.

“제가 죽는 건 소원(所願)이 엇이나 삼당 웨당(三堂外堂)이나 다 불러다 주옵소서. 훈실 말이잇소리다.”

“어서 걸랑 그리 훈라.”

삼당 웨당(三堂外堂) 다 몯아드니 웃음웃을 꽃을 노았더니 황천(仰天) 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노았더니 싸움으로 벌어진다. 멜망꽃[滅亡花]을 노았더니 삼당 웨당이 다 죽어간다. 족은 땔아기가,

“날랑 살려줍서.”

“계건<sup>81)</sup> 널랑 살려주커메<sup>82)</sup> 우리 어머님 죽여단 데껴분 딜 ？리치라.”

“어서 걸랑 경흡서.”

머리 그찬<sup>83)</sup> 청대왓[青竹田]디 데껴불고 존동<sup>84)</sup> 그찬 흑대왓[黑竹田]디 데껴두고 독무립[膝] 그찬 청새왓디<sup>85)</sup> 데껴시난<sup>86)</sup> 어머님 빼를 도리도리<sup>87)</sup> 몯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봄쯤이라 오래도 잣저.’<sup>88)</sup> 머리 글거, 어머님이 살아온다.

71) 수레멜망악심꽃(滅亡惡心花) : 멀망악심(滅亡惡心)꽃. 사람을 죽여 멀망시키는 꽃.

72) 일가방답 : 일가친족.

73) 몯아오건 : 모여오거든.

74) 허끄민 : 훌뜨리면.

75) 메마끗데 : 맨 마지막에.

76) 데껴분 딜 : 던져버린 데를.

77) 골아주민 : 말해 주면.

78) 아전 : 가져서.

79) 오라시난 : 왔으니까.

80) 죽일팔로 : 죽일 판으로.

81) 계건 : 그러거든.

82) 살려주커메 : 살려줄 터이니까.

83) 그찬 : 끊어.

84) 존동 : 잔등이.

85) 청새왓디 : 푸른 떠 밭에(青茅田).

86) 데껴시난 : 던져 있으니까.

87) 도리도리 : 차례로 바르게 모여놓는 모양.

그 자리에 장제침<sup>88)</sup> 족은뜰아기 죽여두고 어명국을 인도(引導)허연 서천꽃밭[西天花田]으로 들어가, 그때에 어머님 죽연 청대왓디 흑대왓디 청새왓디 데껴난 법으로 청대?뜬 청소록<sup>90)</sup> 흑대?뜬 흑소록 열두 풍문(十二風雲)<sup>91)</sup> 주는 법이웨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實演

옛날 옛적 위쪽에 사는 짐진국도 상시당, 아래쪽에 사는 임진국도 상시당입니다. 짐진국은 가난하게 살고 임진국은 천하거부로 잘 살았는데, 짐진국도 자식이 없고 임진국도 자식이 없어서 영급이 좋다는 동관음사에 들어가 원불수륙재를 드려서 자식을 낳는 것이 짐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으니, 짐진국과 임진국이 서로 사돈을 맺기로 하고 구덕혼사를 지냅니다.

짐진국 아들은 이름을 짓는데 ‘원강도령’이라 하고, 임진국 따님아jin ‘원강암이’라 이름을 지어 15세가 지나 20세가 되니, 원강암이가 유태를 가져 배는 큰 항아리같이 불러 오른 때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벼슬을 살려 가게 되어간다. 원강암이와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으로 올라갈 때, 원강암이는 배가 큰 항아리같이 불러 놓고 발은 콩구슬같이 부풀어서 발에 발병이 나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구나. 가다가 날이 저물 때는 마을이 없어 억새 포기 속에서 억새를 의지하여 그날 밤을 새면서 가는 것이, 하루는 날이 저물고 몸은 피곤하여 걸을 수 없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 팽나무 가지에 올라 팽나무 가지를 의지하여 그날 밤을 새다 보니, 천황닭이 울고 지황닭이 울어간다. 원강암이 말을 하되,

“저 닭은 어디서 우는 닭입니까?”

원강도령이 말을 하되,

“저 닭은 자현장자 집의 닭이 우는 소리이다.”

“남인님아 남인님아, 난 이제 더 걸을 수가 없으니 저 닭 소리 나는 부잣집에 가 나를 팔아두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를 받고 배 속에 있는 아기는 얼마를 받으면 좋겠느냐?”

“나는 돈 3백냥을 받고 배 속의 아기는 돈 백냥만 받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자.”

자현장자 집에 가서,

“종이나 사십시오.”

말하니, 자현장자가 말을 하되,

88) 잣저 : 잣다.

89) 장제침 : 장자(長者)집의.

90) 청소록 : 정(青)소록. ‘소록’은 사기(邪氣)의 뜻.

91) 풍문(十二風雲) : 열 두 풍운조화의 측약.

“큰딸아기야. 나가 보아라. 저 종 어떨 것 같으냐?”

큰딸아기 말을 하되,

“그 종 사지 마십시오. 집안 망합니다.”

“둘째딸아기야 나가 보아라. 저 종 어떨 것 같으냐?”

“그 종 사지 마십시오. 집안 망합니다.”

“막내딸아기야 나가 보아라. 저 종 어떨 것 같으냐?”

하니 막내딸아기가 말을 하되,

“아버지 그 종 사십시오. 우리 집안 이로울 종인지 해로울 종인지 모르니 그 종 사 두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돈 3백냥, 배 속의 아기는 돈 백냥을 받아 팔았더니, 원강도령은 안 사랑방으로 불러 음식상을 잘 차려 주되, 원강암이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맬아 내어 주니, 원강도령이 눈물을 세번 흘리다가 자현장자에게 말을 하되,

“이 마을 풍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을 풍습은 서로 이별할 땐 상을 차려 마주 앉아 먹게 하는 법입니다.”

그제야 부부간 겸상을 차려 주니, 겸상을 받아 말을 하되,

“낭군님아 낭군님아, 증표나 주고 가십시오.”

상동나무 머리빗을 한쪽씩 꺾어 증표로 주어 두고, 원강암이가 말을 하되,

“뱃속에 든 아기 아들을 낳으면 뭐이라 이름을 짓고, 딸을 낳으면 뭐이라 이름을 짓습니까?”

“아들은 낳으면 ‘신산만산할락궁이’라 이름을 짓고 딸은 낳으면 ‘할락덱이’라 이름을 지으라.”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원강도령은 서천꽃밭으로 이별하여 떠나고 원강암이는 종으로 사는데, 그날 저녁부터 초이경이 되면 자현장자가 원강암이에게 ‘몸허락을 하라’고 해 간다.

“이 고을 풍습은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을 풍습은 뱐 아기를 낳아야 몸허락을 하는 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밴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자식이 태어나 ‘신산만산할락궁이’로 이름을 지어 두고, 그날 밤부터 자현장자가 ‘몸허락을 하라’ 하니,

“이 고을 풍습은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을 풍습은 낳은 아기 나이가 15세 되어야 몸허락을 하는 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할락궁이가 열다섯 되는 해에 어머님 보고 말을 하되,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갔습니까?”

“자현장자가 너의 아버지시다.”

하루는 가랑비가 살살 내리는 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나 한 되 볶아 주십시오.”

“설운 아기야, 콩이 어디 있어서 볶아 주느냐?”

“장자 집 장막이나 털어 보십시오.”

장막을 털어다 콩 한 줌을 볶으라고 하고, 할락궁이 말을 하되,

“어머님아 어머님아, 저 올래에 누가 와서 부릅니다. 어서 나가 보십시오.”

저 올래에 나가고 보니 아무도 없는데, 그 사이에 할락궁이는 콩 젓던 죽젓광이를 부엌 방석 밑에 감춰두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 모두 타니 빨리 저으십시오.”

죽젓광이를 못 찾아 허둥지둥하여 가니,

“아이고 어머님, 콩이 전부 타지 않습니까. 손으로라도 빨리 저으십시오.”

손으로 저으려 하니, 할락궁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누르면서,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도 바른 말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간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 손 놓아라. 말해 주마.”

손을 놓으니, 어머님이 말을 하되,

“너희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 꽃성인이시다.”

“어머님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갈 테니 어머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간 곳을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아, 장자 집의 메밀장막이나 털어서 메밀범벽 세 덩이만 만들어 주십시오.”

할락궁이가 어머님하고 이별하여 먼 올래로 나서는데, 천년동이 개가 나가서 짖으려 하니 메밀 범벽 한 덩이를 집어던져 메밀범벽 한 덩이 먹는 틈에 천리 길을 뛰어간다. 또 한 덩이를 집어던져 먹는 틈에 만리 길을 뛰어간다. 또 한 덩이를 집어던져 먹는 틈에 수만리를 지나간다. 가다 보니 무릎까지 잠기는 물이 있어 그 물을 넘어 가고, 가다 보니 잔등이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을 넘어간다. 가다 보니 목까지 찬 물이 있어 그 물 넘어가니 서천꽃밭이 다가온다. 서천꽃밭 수양버들 윗가지 위에 올라 보니, 궁녀들이 서천꽃밭에 물을 주려고 연못에 물을 뜨러 온다. 가운데 손가락을 끈으로 묶어 입으로 깨물어서 붉은 피를 세 방울 연못에 떨어뜨리니 부정타서 연못이 말라간다. 궁녀들이 꽃감관에게 가서 말을 하되,

“연못 가운데 수양버드나무 윗가지에 어떤 총각이 앉아서 연못에 풍운조화를 줍니다.”

꽃감관이 나와 말을 하되,

“너는 귀신이냐 생인이냐?”

“어찌 귀신이 나오겠습니까? 생인입니다. 신산만산할락궁이가 됩니다.”

꽃감관이 겁을 바짝 내며,

“너, 증표를 가졌느냐?”

할락궁이가 상동나무 머리빗 한 쪽을 내 놓는다. 꽃감관의 머리빗과 맞추었는데 똑 들어맞아가는구나. 꽃감관이 말을 하되,

“내 자식이 분명하구나. 나를 찾아올 때에 무릎이 잠기는 물이 없더냐?”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희 어머님 첫번째 다짐 받던 물이다. 잔등이까지 찬 물이 없더냐?”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희 어머님 두번째 다짐 받던 물이다. 목까지 찬 물이 없더냐?”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희 어머님 세번째 다짐 받던 물이다. 너희 어머님 원수를 갚으려면 수레멜망 악심꽃을 내 줄 테니 너희 어머님 원수를 갚고, 도환생꽃을 내 주면 너희 어머님을 살려내라. 이 꽃은 웃음 웃을 꽃이다. 자현장자 집에 가면 ‘이 내 몸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마는 장자 집의 일가친족 다 불러다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하여 다 모여 온 때 웃음 웃을 꽃을 흘뜨리면 앙천웃음이 벌어질 것이고, 그 때 싸움 싸울 꽃을 놓으면 일가친족이 싸움을 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수레멜망 악심꽃을 놓으면 일가친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때 장자 집의 작은딸아기만 살려두었다가 ‘우리 어머니 죽여서 던져버린 데를 말해 주면 안 죽이겠다.’ 해서 죽은 곳을 알려 주면 도환생꽃을 놓아서 어머님을 살려오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 악심꽃과 환생꽃을 갖고 장자 집에 오니 죽일 판으로 달려든다. 할락궁이가 말을 하되,

“제가 죽는 것은 좋은데 일가친족이나 다 불러다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자.”

일가친족 다 모여들자, 웃음 웃을 꽃을 놓았더니 앙천 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놓았더니 싸움이 벌어진다. 멸망꽃을 놓았더니 일가친족이 다 죽어간다. 막내딸아기가,

“나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살려줄 테니 우리 어머님 죽여서 던져 버린 곳을 가리켜라.”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머리는 끊어 청대밭에 던져버리고, 잔등이는 끊어 흑대밭에 던져 두고, 무릎은 끊어 푸른 떠밭에 던져 있으니, 어머님 뼈를 차례로 모아 놓고 도환생꽃을 놓으니, ‘아이, 봄잠이라 오래도 잤다.’ 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어머님이 살아난다.

그 자리에 장자 집 작은딸아기를 죽여 두고 어머님을 인도하여 서천꽃밭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어머님 죽여 청대밭 흑대밭 푸른 떠밭에 던졌던 법으로 청대같은 청사록 흑대같은 흑사록이 사악한 열두 풍운을 주는 법입니다.